

민주당 지방선거 '호남발 바람몰이' 완전 실패

전남·북지사 경선 무산 비주류 강력 반발 광주시장 경선도 잡음... 당 내홍 불보듯

민주당 전남지사 및 전북지사 후보 경선이 무산되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도 재심 청구 등 각종 시비로 얼룩지면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흥행을 통해 수도권으로 민주당 바람을 확산시키려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전남지사 및 전북지사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들이 대부분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어 경선 무산의 후폭풍은 심각한 당내 내홍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강운태 의원이 당내 비주류라는 점에서 지도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민주당의 결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박준영 지사와 김완주 지사를 각기 전남지사 후보와 전북지사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 등 3구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무산됐다. 또한, 정균환, 유종일 예비후보와의 치열한 경쟁전이 예상됐던 전북지사 후보 경선도 없던 일이

됐다.

민주당은 박준영, 김완주 예비후보를 제외한 전남지사 및 전북지사 경선 후보들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끝까지 후보 등록을 거부함에 따라 단독후보를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경선 무산의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마무리됐음에도 재심 청구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전남지사와 전북지사 후보 경선이 무산됨에 따라 호남 광역단체장 경선에서의 흥행몰이로 수도권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킨다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남에서부터 극적인 경선 드라마를 연출하겠다는 전략이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호남권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등 비민주당 바람을 격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남지사 및 전북지사 후보 경선 무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의 심각한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나설 예정이었던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 전북지

사 후보 경선에 나설 예정이었던 정균환, 유종일 예비 후보 등이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채신모임 등 민주당 비주류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독 후보를 선정, 경선을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 중앙당에서 진상 조사에 나선 것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광주지역에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불법 ARS 여론조사와 관련, 경선 방해 등의 이유로 수사의뢰를 했다는 점에서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뒤늦게 자체 진상조사를 결정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시장 후보 당선자인 강운태 의원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반면 재심을 청구한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은 당내 주류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 이같은 정치적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비주류를 대표하는 채신모임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후보 경선과 관련, 집중적인 논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주류-비주류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 5·18 묘역 참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강운태(왼쪽) 의원은 12일 지지자들과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분향·참배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YMCA協 교육감 후보 '매니페스토 약속식' 특정후보 밀어주기 논란

전남의 한 사회단체가 전남도 교육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개최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약속식을 놓고 '특정 후보 밀어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YMCA 협의회는 지난 10일 목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교육정책 공개 매니페스토 약속 체결식'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 인권 등 4개 분야의 정책서를 만들어 각 후보들에게 동의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를 놓고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이벤트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안된 정책 대부분이 일부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인데다 행사 주최측의 일부 회원들이 특정후보의 가치 '도민후보' 추대에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행사에서 제시한 공약에는 수준별 학습·야간자율학습·일제고사 폐지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교육현장에서 높은 교육성

과를 낸 제도를 반대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 때문에 6명의 도 교육감 예비후보 중 유력후보인 김장환, 신태학 후보는 불참했다.

김장환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해 얼굴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자로서 교육효과가 높은 정책까지도 반대하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이번 행사를 주관한 단체의 사무실에서 특정후보를 추대하기도 했던 만큼 순수성마저 의심돼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서기남 예비후보측도 "매니페스토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특정공약을 나열해놓고 서명하라는 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사를 주관한 목포YMCA 관계자는 "준비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남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순수성만을 담아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곽영욱, 민주 의원들에 10만달러 제공"

이귀남 법무장관 밝혀 檢, '한명숙 무죄' 항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일부 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항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지방 선거일인 6월2일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10만 달러를 줬다는 최하의 진술과 관련,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과전 사장은) 검찰이 다시 물었을 때 해의 출장을 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준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전 사장이 10만 달

러를 안주고 줬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기 무사위 그냥 줬다고 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는 민주당 정장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앞부분만 써서 그런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검찰의 별도 수사와 관련, "검사가 적극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있어 검사가 확인해보니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혀 별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백종현 프라임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 회장이 지난 2006년 12월20일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함모(49·수감 중)씨, 건설업체 C사 대표 배모씨 등과 함께 한 전 총리와 만찬을 함께 한 사실을 확인하고 11일 백 회장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내일 재심 회의

이용섭·정동채 청구

'불법 ARS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대한 재심 회의가 14일 오후 3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 유선호 위원장 측 관계자는 12일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예비후보가 공식적으로 재심을 요구해와 첫 회의를 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또 수사의뢰한 검찰 측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함은 물론 선관위 내 공명선

거분과를 통해 당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 청구 접수를 완료했으며 정 후보는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을 상대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접수했다.

재심위원회는 위 위원장 외에 양승조(간사)·정범구·문화진·백재현·우재창·전해숙 의원, 이복희 전 의원, 이경숙 사무부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전남지사 경선 사상 첫 TV 토론

내일 KBC 공개홀서... 주말 도민 2천명 여론조사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전남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 TV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전남도지사 후보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경선전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측도 전남도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와 토론회 준비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한나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로 나선 김대식·김문일 정 준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차례 TV토론을 거친

뒤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후보 TV토론회는 오는 14일 오전 KBC 광주방송 공개홀에서 녹화된 뒤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90분간 방영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TV토론회 이후 세 후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곳의 외부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 오는 17일~18일 이틀간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그 결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당내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

서 경선 후보 3명은 도민 접촉을 늘려가며,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남에서는 한나라당이 불모지라만 남 단 한 번뿐인 TV토론회에서 최대의 자신 의경력과 자질·도덕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 등에 비해 한나라당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각 후보 측은 전남지역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TV토론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처음 열리는 TV토론회를 통해 한나라당 후보들의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한국부동산컨설팅

구 합

- 삼거동 - 5000평이상/관리지역/차량진입가능
- 연산동 - 오피스(20-25만원)/800평정도/투자용(그린벨트상관없음)
- 벽진동 - 창고용지/500평정도
- 마트자리 - 10억(현금6억)

매 도

- 삼거동 - 2만3천평/상담후결정
- 삼암지구 - 1850평/40억/대로집
- 중흥동 - 200평/대로집(100%대출가)상담후결정
- 산수동 - 215평/6억5천/대로집(100%대출가)
- 내방동 - 280평/7억8천/대로집(100%대출가)
- 담양대덕면매산리 - 3000평/물류센터적합/대로집(100%대출가)
- 우산동 (광송간 도로) - 800평정도/65만원(평당)
- 세하동 - 700평/50만원(평당)/도로집
- 광산구 신용동 - 1500평/50만원 도로집(물류창고 적합)
- 만평 중앙지구 수원지구
- 삼무지구 주유소 - 약 350평/매매11억/공시지가(5억 7천만원)

한국부동산 컨설팅

농성동 641-5 서구청 맞은편(1층·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금상담>

신축상가임대(매매)

■대지면적 : 281㎡(93평)
■건축물면적 : 618㎡(184평)

층	권장업종	비고
1	회센터, 식음점, 편의점, 약국 채식/고기뷔페, 보쌈	132㎡(40평)
2	피부관리, 의료 (가정의학, 한의원)	171㎡(52평)
3	독서실, 의료 (가정의학, 한의원)	132㎡(40평)
4	사무실, 학원, 당구장, 병·의원	132㎡(40평)

※ 매매가 9억(용자없음)

■특징

광천동 대림 e편한세상 1096세대와 기존 주택 세대수(2,000세대)가 인접함으로써 인접상권 가치 및 저렴한 임대 가능

탑공인중개사

임대 062)368-0789
문의 010-3602-4840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